

# 인조 정권 정통성 확보 위해 추존된 왕



16대 추존왕 원종-장릉 (16대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

15대 광해군 묘 다음으로 16대 인조의 능을 순례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추존왕 원종의 장릉이 있어 도리 없이 김포로 간다. 조선 역대 왕들에 대해 직계 후손들은 하나같이 00대왕이라 부른다. 인조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말해서 평가가 다양하다.

이런 평가도 있다. 조선 왕조에 반정은 두 번 있었다. 폭정을 일삼던 제10대 연산군을 몰아낸 것은 의로운 거사다. 오늘 날로 치면 4·19혁명과 같다. 그러나 인조반정은 그렇지 못하다. 반정이란 미명하에 저지른 역적행위요 밧그릇 싸움이다. 이순신까지 탄핵했던 서인당파가 일으킨 폭거가 인조반정이다. 광해군이 융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는 국력을 회복할 수도 있었다. 최악의 자중수를 둔 역사가 인조반정이다. 반정 일파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의병, 의승군의 문화를 몰아내는데도 앞장섰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들의 대의명분은 오랑캐 타도였다. 오랑캐 타도라는 어설플 정적 때문에 온 나라가 병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그들이 주장한 오랑캐는 후금이었고, 후금은 얼마 후 중국을 통일한 청나라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큰소리치던 인조와 대신들이 가장 먼저 도망쳤다.

정원군은 선조와 인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아들 중 셋째다. 정원군의 맏아들이 능양군이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다. 능양군의 동생 능창군이 역모혐의로 광해군에 의해 위리안치되었다가 목을 매 죽었다. 아비인 정원군은 율화병으로 4년 뒤 죽었다. 아비를 잃고 동생을 잃은 인조의 원한은 반정으로 나타났다.

왕이 된 인조는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려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조선은 명분 제1주의 사회다.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다. 의리와 명분은 분명, 가치를 지닌다. 지조와 절개는 아름답다. 사육신, 삼학사의 행적은 귀감이 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명분을 만들려는 싸움은 우습다.

인조가 왕위에 오른 후, 누구의 대통을 잇느냐는 정통성 문제가 불거졌다. 할아버지 선조의 종통을 잇고 선조를 아버지로 부르고 친부 정원군을 백부로 불러야 한다는 김장생의 주장과 친아버지 정원군을 그대로 아버지로 해야 한다는 박지계 등 공신들의 주장이 대립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허무 개그지만 당시 대신들은 심각했다. 품쟁품사, 명쟁명사의 시대였으니깐.

선조의 대통을 이어야한다는 주장의 속내는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려는 인조의 뜻을 꺾기 위함이었다. 대군도 아닌 왕자(군)에 불과했던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예조와 삼사, 유생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추존에 찬성한 박지계를 성균관에서 제명하고 수업까지 거부했다.

인조6년(1628)부터 정원군 추송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다. 반정공신 이귀, 최명길 등이 분위기를 잡아



장릉(章陵)은 조선 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元宗, 1580~1619)과 인현왕후(仁獻王后, 1578~1626) 구씨를 모신 능이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 정원군으로 왕모가 출중하고 태도가 신중했으며,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선조의 사랑을 받았다. 정원군은 처음에 양주군 곡촌리에 묻혔다. 큰아들 능양군(인조)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자 정원군은 대원군에 봉해졌다. 묘가 원으로 승격되어 흥경원이라 했다. 1627년 인조는 정원군 묘를 김포현 성산 언덕으로 천정했고, 1632년 다시 왕으로 추존하여 묘호를 원종, 능호를 장릉이라 했다. 인현왕후는 아들(인조)이 즉위하자 연주부부인이 되었고, 궁호를 계운공이라 했다. 1626년 49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김포 성산 언덕에 매장하고 원호를 육경원이라 했다. 흥경원을 이곳으로 천정하면서 원호를 흥경원이라 함쳐 불렀다. 원종이 왕으로 추존되자 지동으로 흥경원이란 이름 대신 장릉으로 불린다. 사적 제202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 141-1 면적 51만9816㎡ (15만7520평).

## 성균관 유생들 “전례 없다” 반발 극심 인조 즉위 13년만에 종묘에 위폐 봉안

나갔다. 주상 전하의 진부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반대가 거세자 인조는 1631년 이귀를 이조판서, 최명길을 예조판서에 임명하여 마침내 1632년 뜻을 관철했다. 정원군을 원종으로, 계운궁 구씨를 인현왕후로 추송했다.

그러나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대사헌, 대사간은 반발을 꺾지 않았다.

“왕위 재위자가 아니면 종묘에 봉안되지 못하는 것이 고금의 법도이다. 원종(정원군)은 선조와는 군신 관계다. 제왕의 종묘는 지엄한데 소종이 대종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종묘에 봉안될 수 없다.”

추존왕이 되었으나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던 헛수고다. 인조의 머리도 아팠지만 이미 죽은 지 13년, 백골이 진토된 정원군 역시 누운 자리가 편지 않았을 것이다. 제발 날 혼들지 마라. 과공비례(過恭非禮). 효성도 지나치면 불효가 되건만, 억지 춘향도 유분수지 등의 말이 떠오른다.

정원군 추송에는 인조가 즉위한 지 13년 만에 겨우 결정되어 1635년(인조13)에 원종은 종묘에 위폐가 봉안됐다. 인조의 고집은 자신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에게 스스로 멸시 당한다고 말할 정도로 수모를 겪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으니 성리학의 정통 문법에 반한다. 아비를 왕으로 추존하여 자신의 권위와 위상이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 도덕성 확보는 지금도 화두다. 군사정권의 화려한 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냉소를 감수해야 한다. 정통성과 도덕성은 무한 욕구를 가진 비밀의 방이다. 따뜻한 온기를 모락 모락 피우다가도 잠시만 방심하면 한순간에 시퍼런 칼이 된다. 출가수행은 물론 속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살아 있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이다.

인조의 유격다짐 덕분에 김포 사람들은 좋은 휴식 공간을 만날 수 있다. 150여만 평의 절대 녹지공간, 공원을 가졌다. 능을 중심으로 좌우로 실개천이 흐른다. 개울의 끝 자락에는 연이 수북히 자라는 두 개의 연못이 있다. 규모가 커서 저수지(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조는 훌륭한 아들인가? 아닌가?)

능역 바깥으로 장릉을 돌아 연못 옆으로 난 길을 가면 금정사(金井寺)가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 봉등사(奉陵寺)라고도 하는데 장릉의 원찰이다. 장릉을 조성하면서 부근에 있던 절을 폐사시키고 장경했는데, 1920년, 1938년에 중수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불에 탔다.

1970년 고근(古根) 스님이 중수했고, 1974년 비구니 정념(淨念) 스님이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켰다. 1981년 대웅전을 새로 짓고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양초 = 밀납양초, 약썩양초, 식물성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 (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입 받침대 2개입) 선물세트
- 2 밀납초(5~8호까지 8개입) 선물세트
- 3 밀납초(9~12호까지 8개입) 선물세트
- 4 밀납초(13~16호까지 8개입) 선물세트
- 5 밀납초 1호 반아침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2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아침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아침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썩양초**

- 1 원기동 7.4φCm × 29Cm
- 2 돈타래 5.6φCm × 27Cm
- 3 밀 대 4.7φCm × 25Cm
- 4 1호 5.9φCm × 20Cm
- 5 2호 5.9φCm × 14Cm
- 6 3호 4.7φCm × 13Cm
-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 양초.net

목각초 45cm

아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아광 용초 70φ X 35cm

원기동 마패 7.4φ X 30cm    동산불 마패 4.7φ X 19.5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 역학강좌안내

- 초급 및 중급 과정 6개월
- 4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 효타비결 전수반 2개월 (스님에 한함)
-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수 18시 - 20시
- 무료 강좌
- 3월 한달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효타비결전서를 무료로 강의하여 혼자서도 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성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 적용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30,000원

###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명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되어
- 개명, 작명, 범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점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오.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